

1백50만 양축농민의 호소문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속에서도 우리의 축산업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양축 농민들의 고통은 더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국제사료 곡물가격의 앙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양축산업은 더욱 어려운 곤경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의 1백50만 양축농민은 자립의지의 천명과 아울러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공평한 삶을 보장 받고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국산옥수수의 배합사료 원료 배정 철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옥수수는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수매하여 사료원료로 강제배정 함에 따라 궁극에는 양축농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분적이거나 농가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 국산 옥수수를 수매한다면 이의부담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흡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국제가격보다 4배나 비싼 국산 옥수수의 활용으로 발생하는 연간 1백50억원의 부담을 양축농민에게 국한시켜 짊어지워 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며 이는 국민전체가 직접 소비하는 공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부재원으로 차액보전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산옥수수와 외국산 옥수수와 가격차액이 농가소득보전 이라는 미명으로 양축농민에게 전가되는 관행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양축경영에서 배합사료는 70% 이상을 점유하는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때문에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로 양축농민에게 돌리지는 부담은 연간 6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축산물 생산원가의 가장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입개방에 맞서 대처해야 하는 양축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케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양축농민들의 생산원가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의욕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는 비료나 농약, 어업용 기자재와 마찬가지로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렵다면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는 농가부업적 영세 양축농민들에게만이라도 혜택이 돌려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1백50만 양축농민은 전환기의 어려움을 극복키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역부족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양축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가 관철되어 축산업을 포함한 모든 농업부문이 국민경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정부당국의 배려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988년 12월 일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사료협회